

# 도내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30일까지

1인당 30만원 지원  
예술활동증명 유효해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제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오는 30일까지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등록예술인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누리집 공고문(www.jbct.or.kr/post/7601)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해 전자우편(jb\_7447@hanmail.net)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전북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할 수도 있다. 지원금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분류와 심사를 거쳐 12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받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인들의 삶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2020년 11월 기준 유효한 예술인은 1,86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예진흥팀(063-230-7434, 74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가족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은?

- 전북여성 미래포럼
- 가족수당 지급할 경우
- 가족교육 의무 참여
- 양성평등 교육자 확대
- 중년 남편을 대상으로 한
- 가사활동 체형 등 제언

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지역성평등지수와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인식 조사, 코로나19 이후 변화,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가족 성평등 실태를 검토했다. 이어 성평등 실태 개선 방안으로 ▲가족수당 지급 시, 가족교육 의무참여(부부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자 확대, ▲중년 남편 대상 가사활동 체험프로그램 등의 교육사업 확대와 ▲출산·양육·돌봄제도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제안했다. 이운에 센터장, 김혜경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천명옥 본부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사업본부), 김영주 실장(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운에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지역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이 개선되고, 또 성평등한 가족 문화가 확산 돼 향후 전라북도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에)는 25일 제4회 전북여성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내 가족 성평등 실태를 분석해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전희진 부연구위원(전북연



## '별 아래, 풍경'

gallery숨 '공감·공유'  
이숙희 개인전 30일부터

이숙희 개인전이 오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린다. '별 아래, 풍경'이라는 전시명으로 gallery숨 전시공간지원기회 '공감·공유' 형태로 전시된다. 이 작가는 '별 아래, 풍경'을 통해 요즘 산책을 나갈 때면 저녁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세어 보는 습관이 생겼다. 별 하나, 둘, 셋, ... 이렇게 별들을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된다. 마치 행복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나 할까. 소소한 마주치는 내 마음에 들어온 풍경들에 사랑 가득 별빛을 담아내어 본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풍경들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벗처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지길 기대해 본다. '별 아래, 풍경'의 작품들을 통해 행복한 위로를 얻고 별처럼 꿈꾸는 소망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숙희 작가는 개인전 25회, 그룹전으로 2020 코리아아트페스타-전통과 현대 미술의 동행전(한국미술관, 서울), 2020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영화 한편으로 달래요'

무주산골영화관  
작은영화관 기획전

오늘 '나는 보리' · '밤샘'  
내일 '툭보이' · '후쿠오카'  
28일 '고양이 집사' 등  
29일까지 하루 4회 4편 상영

28일 오전 11시 <고양이 집사-전체 관람가>, 오후 1시 30분 <기드 : 채플린, 그리고 관소리+영화 그리고 소리꾼 이야기-전체 관람가>, 오후 4시 <야구소년+감독과의 대화-12세 관람가>, 오후 7시 <들리나요? -전체 관람가>가 상영된다. 29일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카오산 텡고-12세 관람가>, 오후 1시 30분 <시타리이트 : 채플린, 그리고 번사+채플린 파우치 만들기>, 오후 4시 <나는 보리 + 감독과의 대화-전체 관람가>, 오후 7시 <툭보이-12세 관람가> 관람이 가능하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모든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엄선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영화관 내 거리두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중이며 관람객들의 마스크 착용 지도와 함께 발열 체크, 손 소독, QR인증과 명부 작성 등 세부 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관이 '2020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전은 '우리 동네에서 색다른 영화를 경험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시작돼 29일까지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로 28일 오전 11시 <나는 보리-전체 관람가>, 오후 1시 30분 <들리나요?-전체 관람가>, 오후 4시 <카오산 텡고-12세 관람가>, 오후 7시 <밤샘 :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15세 관람가>가 상영된다. 27일 오전 11시 <에이브의 쿨링 다이어리-전체 관람가>, 오후 1시 30분 <레이니 데이 인 뉴욕-15세 관람가>, 오후 4시 <툭보이-12세 관람가>, 오후 7시 <후쿠오카-15세 관람가>를 볼 수 있으며



제4회 전북여성 미래포럼 비대면 화상회의의 영상 캡처. <사진=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공>

## 전국시사만화협회, 창립 20년 '인간, 사회 그리고 시대를 그리다' 출판

2000년 1월 창립된 전국시사만화협회의 발자취가 책 한 권에 담겼다. 전국시사만화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 '인간, 사회 그리고 시대를 그리다'를 출판했다고 24일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날 "지난 20년간 전국시사만

화협회 시사만화가들이 인간 사회를 그리고, 시대정신을 그리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달려온 기록이자 한국 시사만화의 역사서"라며 "이 기록물을 통해 성찰하고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20년사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토론회 내달 1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화부)는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영수)와 함께 12월1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무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적절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